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57호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오는 8월 30일 출범

준비위, 청년문제 의견 수렴
"청년 일자리·주거 관심 필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오는 8월 30일 공식 출범한다.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심산)는 7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8월 30일 오후 7시 조계사 마당서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인 헌장이 발표되며, 다양한 청년단체를 초청해 공양을 대접하고 문화공연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미래세대위원회는 스님과 재가자, 외부인사를 각각 7인씩 배정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스님위원은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재가자위원은 준비위원과 추천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외부인사는 간담회 참석자와 추가 추천을 받아 선별한다.

또한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준비위원회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활동방향 정립을 위해 청년문제 의견을 수렴했다. 전체회의 이후 '미래세대에게 불교의 역할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어진 청년단체 간담회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불교계 관심을 호소했다.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청년정책이 사회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도 형식과 제도만 복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서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에서 배제된 대상과 새로운 수단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복지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봉암 주지 선엽 스님과 이채은 대불련 간사는 불교계가 미래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선엽 스님은 "불교가 미래세대인 20~30대의 삶과 분리돼 있다. 특히 소통의 부재로 인해 미래세대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포교단체 재정인식 '無'… 후원 특성화 필요

조계종 포교원, 포교단체 재정 건전화 워크샵

7개 단체 재정 사전 진단
후원금 10% 넘는 곳 2곳
사실상 후원 체계 없어

동문 등 모집방안 제시
"단체 성격 비슷한 곳
공동모연 협업도 필요"

조계종 포교단체의 안정적인 포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후원 조직 체계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포교단체 재정 건전화 워크샵을 개최했다. 어린이 · 청소년 · 국제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단체는 20여 곳에 달한다. 이날 워크샵에는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 등 10개 단체 임원 및 실무자 31명이 참여했다. 워크샵에서는 7개 단체가 재정 자료를 사전에 제출,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의 진단을 받았다.

사전 제출된 7개 단체의 재정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수입 중 기부금과 후원금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대한불교청년회(43.7%)와 동련(37.6%) 등 2곳에 불과했다. 포교사단(9.5%), 불교여성개발원(6.3%), 파라미타(4.8%), 국제포교사회(3.7%), 불교상담개발원(2.8%) 등은 사실상 기부 후원 모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단체에 후원회가 없었다.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도 1명으로 이마저도 운영, 후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맡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곳도 전무했다. 반면 종단 보조금이나 회비 의존도가 후원 모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춘 소장은 "종단보조가 평균 20% 수준으로 종단 포교단체 특성 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반적인 재정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포교 재원 확보에서 회비나 종단 보조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기부나 후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교단체에서는 왜 기부 후원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포교단체들은 태생부터 재원 마련보단 포교 실천 쪽에 조직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사회서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의 조건이 있어 공동모금 형태를 띄고 있다. 불교계는 아직 복지분야서만 이런 기부모연 개념이 들어온 상태다. 다양한 포교 실천을 위해서는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소장은 "돈을 모으는 모금이 아닌 인연을 모으고, 선연을 쌓게 하는 모연 개념으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며 "개신교계는 교회와 길거리에서 후원 모금을 위한 전문영상과 전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워크샵에서는 △대불련, 연세대 '블루나비' 및 이화여대 '선배라면' 등 동문 모연 벤치마킹 △국제포교사회, 국제포교사 직접 후원 △파라미타, 학부모후원회 및 파라미타동문회 구성 등 각 단체 특성에 맞는 후원조직 구성방안이 제시됐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모연활동에 나서고 있는 중앙신도회 장성원 팀장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기부자에게 단체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원자는 단순히 재원을 제공하는 ATM기가 아니며 후원이 중단되더라도 단체 사업과 포교에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부 후원 모연에서 각 포교단체가 중복된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후원 활성화를 하다보면 포교사단과 교정교화 전법단, 파라미타와 동련 등 활동분야가 일부 겹치는 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은 함께 공동모연 등 협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하반기 전법단 전문화 교육에서 포교단체를 참여시켜 기부, 후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를 위해서는 신심과 원력도 중요하지만 재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각 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더불어 서로 돕는 생명살림 되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17일 관음재일을 맞아 '연꽃 더불어 생명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300여 대중들은 불법승 구호에 맞춰 연꽃항아리에 미꾸라지를 방생했다. 미꾸라지는 항아리 흙 속을 헤집고 다니며 산소를 공급해 연꽃 생장에 도움을 주고 모기 유충도 없애게 된다. 사진은 법회에서 조계사 스님이 생명살림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방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저잣거리서 물들지 말라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② 자주적인 인간

법정 스님을 만나려면 불일암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때 나는 샘터사에서 근무했는데, 스님의 산문집을 편집하면서 불일암을 자주 찾았던 것이다. 회사일로 가는 출장길이었지만, 나는 1박 2일 출가하는 기분으로 서울을 떠나곤 했다. 승용차가 없어서 순천까지는 기차를 탔고 순천에서 송광사까지는 시외버스를 탔다. 또 불일암까지는 걸어서 가는데 땀을 한 줌 흘려야만 했다.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휴가철에는 아내와 두 딸아이를 데리고 불일암을 올라가기도 했다.

입적하신 스님이 그리울 때마다 몇 가지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한 번은 스님께서 국수를 끓이시고 내가 설거지 당번을 했을 때다. 스님께서 삶은 국수를 불일암 우물가로 가져가 찬물에 식히는 순간, 꼬들꼬들해진 국수 몇 가닥이 우물 밖으로 넘쳐흐르는 물에 떨어졌다. 스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신도가 수행 잘하라고 보내준 정재(淨財, 맑은 재물)인데'라며 주워 드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수행자란 상담이나 하는 카운슬러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분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일러스트 · 정윤경

또 한 번은 관광객이 불일암까지 허둥지둥 올라와 스님을 찾았다. 스님과 마주치자 관광객이 "TV에서 본 모습과 똑같습니다. 스님,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스님께서 "고향이요? 화두가 따로 없네. 허허허"하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시던 모습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나는 화두가 선어록에만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수행자에게는 매사가 화두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몇 년 뒤 회사일과 상관없이 스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불일암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잤다. 불일암 오동나무에 구멍을 파고 사는 호반새가 스님께서 휘파람을 멋들어지게 불자 공중제비를 하는 단옷날 아침이었다. 나는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스님께서는 저잣거리에서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과 함께 계첩을 주시고, 오계를 받는 공덕이 무엇인지 법문을 해주셨다. 오계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자 내 행동을 바로잡아줄 신호등과 같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해 여름에는 스님께서 진달래 꽃물이 든 분홍빛 한지에 휘호를 써 보내주셨다. 내용은 지금까지 스님께서 내려준 법명의 뜻과 함께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초기 불경인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었다. 나중에 스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시어 '세 구절 속에 팔만대장경의 깊은 뜻이 다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주적인 인간의 폿대 같은 가르침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당당하게, 걸림 없이, 청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는 임제선사의 참사람(無位眞人)이 아닐까 싶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5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6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유교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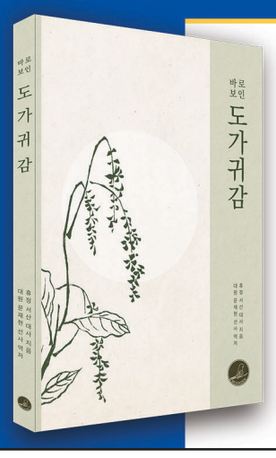
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간추려놓은 구절로서 간결하지만 심오하기 그지없다. 간략한 구절 속에서 유교 사상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한 서산대사의 박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